

지역 매아리

부안군, 전북투어패스평가 1위

부안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2018 전북투어패스' 시·군평가에서 군부 1위를 차지해 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했다.

전북도가 전북권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북투어패스 판매, 홍보, 가맹점 발굴 및 관리 등 투어패스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부안군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유이용시설 3개소, 특별할인가맹점 15개소를 신규 가맹하였고, 전북권 대표사찰인 내소사와 고창 선운사의 전북투어패스 가맹에 모두 보 역할을 하였다. 또한 품소정갈발효축제·문화누리카드·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전북투어패스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최연권 문화관광과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부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북투어패스 평가 1위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부안관광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11개의 자유이용시설 가맹점과 275개의 특별할인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어패스 카드 한 장으로 11개의 자유이용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특별할인가맹점 중 10곳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체육회, 화합과 결속 다지는 '체육인의 밤' 개최

정읍시체육회는 내일 올 한해 정읍시체육회 사업 결산 및 체육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2018 정읍시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하여 체육회 및 종목 단체 임원, 읍면동 체육회장, 수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정읍시 출신 메이저리거 오승환 선수(플로리다 로키스)가 초·중·고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및 팬 사인회를 실시하여 야구 꿈나무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체육인의 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정읍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과 정읍시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재능기부 및 팬 사인회를 통해 고창사랑을 실천한 오승환 선수에게는 자랑스러운 체육인상을 수상할 계획이다.

정읍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인의 밤 행사를 통해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쁨의 순간을 되새기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

정읍시, 5547억원 확보... 387억원 증액 지역정치권과 공동 대응 예산확보 큰 성과

정읍시가 (시장 유진섭)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주요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7일에 2019년 국가예산으로 전년 대비 387억원이 증액된 5천 54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9년 국가예산으로 확보된 SOC 분야 주요사업은 ▲정읍~신태인간도로확포장(206억원) ▲정읍 국도대체(농소~하모)우회도로(42억원)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25억원) ▲동진강 종합처리사업(40억원) ▲덕천천 지방하천정비 사업(10억원) 등이다.

농림·환경과 문화·관광분야에는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지원 사업(14억원) ▲향토산업육성 사업(4억원)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6억원) ▲생활권 도시숲 조성(19억원)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9억원) ▲조립사업(5억원) ▲동화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78억원) ▲제1회 동화농민 혁명 기념식(2억원) ▲동화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2억원) ▲태산선비원 건립(73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R&D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문제 해결형 독성연구 인프라구축(18억원) ▲방사선 생물화학반응 원천기술 확보(5억원) ▲화학물질 흡입독성평가 연구사업(5억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도심활력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중심 시가지형, 공기업 제안형)에 선정되어 총 67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처럼 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진섭 시장의 남다른 국가예산 확보 의지가 한 몫을 했다.

유 시장은 민선7기 취임과 동시에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부서장들에게 강조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시했고, 본인 또한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자들에게 건의하여 관철시키는 등 총력을 기울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유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성업 의원(민주평화당)과 더불어

어민주당 정읍고창위원장이 이수혁 의원을 수시로 만나 2019년 국가예산 대응체계를 논의 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에 시 관계부서와 두 의원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냈다.

또한, 유 시장은 전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아를 넘나들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상임위 심의 시에는 도내 국회의원인 정은찬(바른미래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세균(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주홍(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예산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예결위 심의 시에는 안상수(자유한국당) 예결위위원장과 조경식 민주당 간사 등을 만나 예산 당위성을 호소해 그 어느 해보다도 공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벌였다.

유 시장은 2019년 국가예산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정읍시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성업 의원과 이수혁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며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정읍시의 숙원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새롭게 대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한 발짝 더 다가서다

부안 설(雪)송어 축제 2만여명 찾아 성황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상설시장 상인회(회장 남정수)는 2018 제9회 부안 설(雪)송어 축제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雪)송어 축제는 화창한 주말을 이용, 부안군민과 더불어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20,000여명 이상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9일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열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 가족 및 어린이 체험으로 구성된 '송어잡기' 대회는 축제 기간 내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올해 축제는, 제 5회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과 함께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마실 축제를 잇는 부안 지역 겨울 대표 축제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보여졌다.

부안군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페스티벌에는 난타, 통기타, 댄스, 오키리나, 색소폰 등 여러 분야의 공연 팀이 함께 했고 다채로운 야외 체험행사도 이루어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제를 통해, 지역민들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꾀하고, 이런 참여와 노력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통시장과 지역민들이 함께 발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건전한 여가 활동, 스포츠강좌 신청하세요'

정읍시, 취약계층 유·청소년 매월 8만원씩 수강료 지원

정읍시가 17일부터 28일까지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매월 8만원까지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헌부모가구, 범죄피해자가구의 민5에서 18세(출생일 기준 2001.1.1.~2014.12.31.) 유아·청소년이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또는 시청 문화체육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선의 복지행정 서비스 위해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읍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정기총회·송년의 밤 행사 가져

정읍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중수, 이하 복지행정연구회)는 최근 2018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복지행정연구회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을 비롯한 조상중, 이상길, 기시재 의원과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송운용 회장, 주민지원과 백준수 과장, 복지여성과 김정임 과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회 회원들의 한해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복지행정연구회는 109명 회원 모두 정읍시 사회복지공무원이며,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과 연구 등을 통해 자질을 향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1999년에 결성되어 활동 중인 자조모임이다.

이날 열린 행사는 그간의 행정연구회 활동을 돌아보고 2019년 활동방향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18년 결산과



정읍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최근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차기 집행부 선출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의했으며, 차기 집행부 선출에 관해서는 박중수 회장, 노유정 부회장, 김신철 감사를 유임하고, 차기 남자 부회장으로 정종필 부회장이 선출됐다.

이어진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하는 말과 장기자랑, 신규사회복지공무원 소개, 참석 회원들 간에 1년을 회고하는 이야기 등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 실시됐으며, 박중수 회장의 2019년의 회망에 대한 대답과 건배제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중수 회장은 "날이 추워질수록 몸과 맘이 더욱 바빠지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회원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길과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다"며 "최선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해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지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특별교부세 12억5000만원 추가확보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9억원과 '맛집형 경보발전 적설계 설치 사업' 3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1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갯벌·온곡탐사르습지와 연계해 인근 공산저수지 일원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고창의 뛰어난 수(水) 생태 자원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여가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맛집형 경보발전 적설계 설치'는 읍면 지역별 적설량을 실시간 파악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다. 대설 등 각종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해 맞춤형 상황관리와 재해예방조치, 선제적 주민보호가 이뤄지게 됐다.

올해 고창군은 특별교부세로 현안분야 사업 등 총 14개 사업 45억6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재난분야 특교세는 42억5000만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최대 규모다.

고창군 관계자는 "그간 고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현안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gift set options listed with prices and quantities.